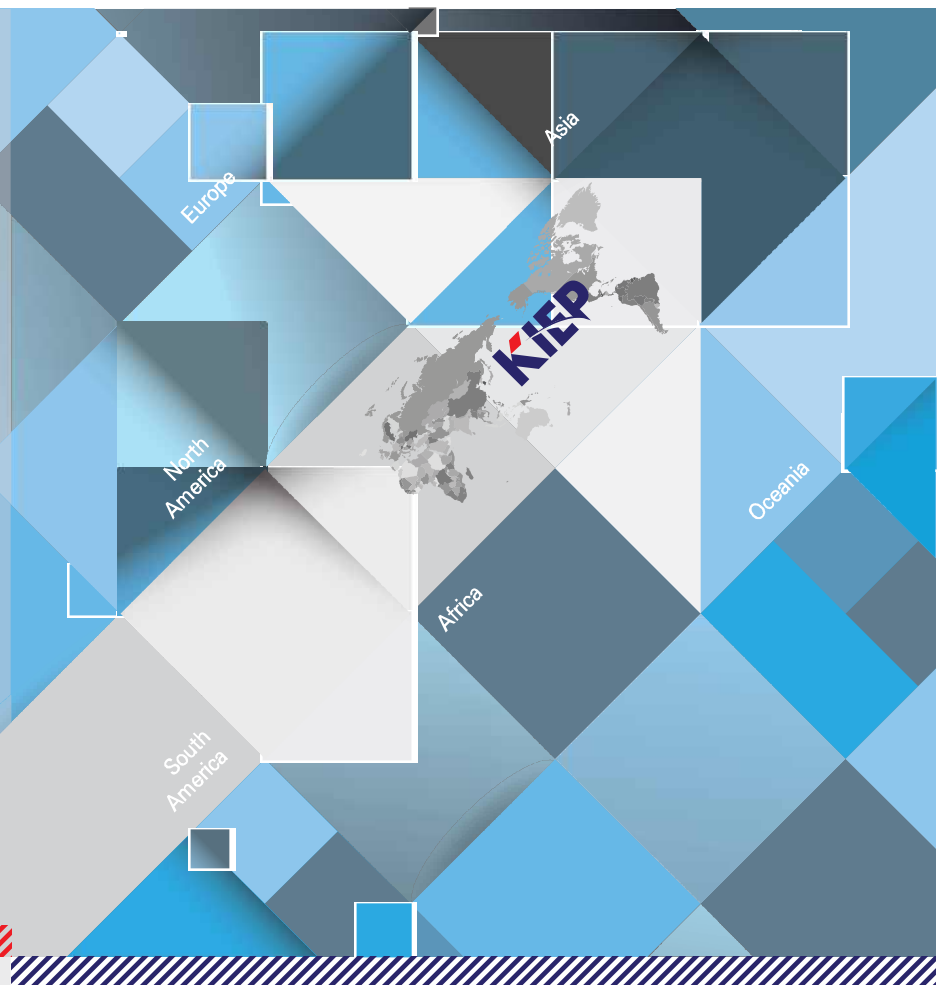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18-29

2018년 12월 17일



한·북아프리카 3개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정재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부연구위원
(jwjung@kiep.go.kr, 044-414-1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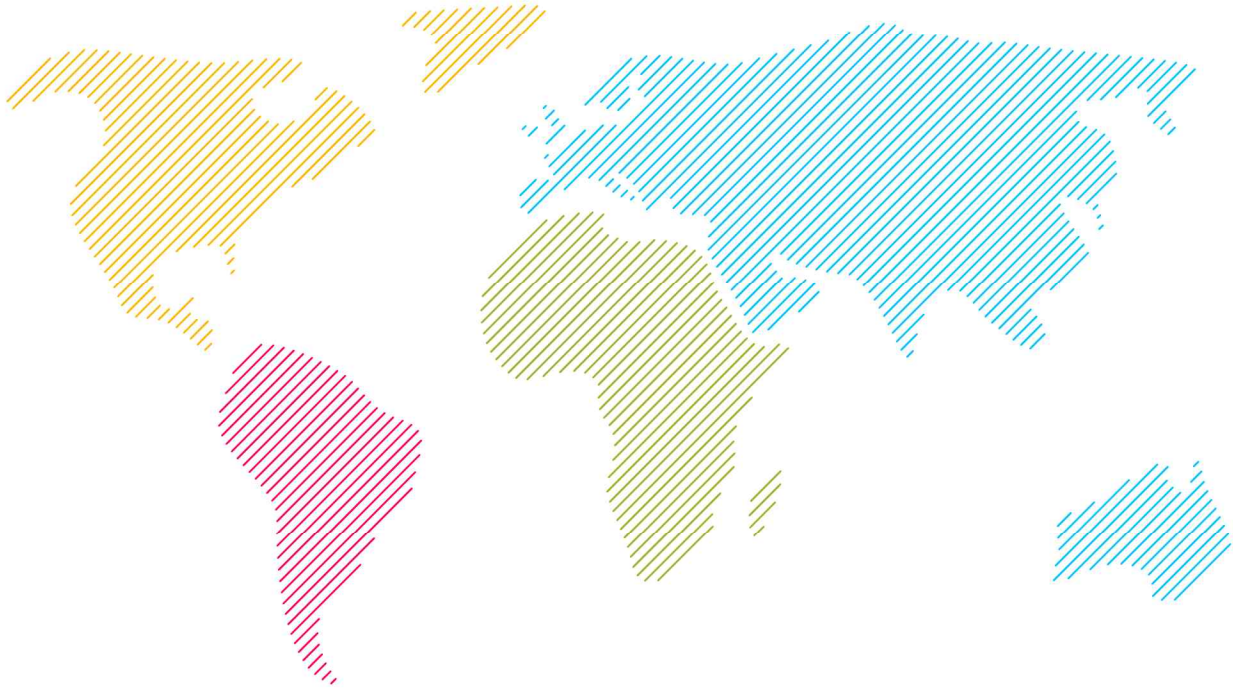
손성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shson@kiep.go.kr, 044-414-1266)

유광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연구원
(khryou@kiep.go.kr, 044-414-1165)

한·북아프리카 3개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요약

- ▶ 12월 16~22일에 걸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식 방문하는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는 석유, 천연 가스, 인광석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요충 지임.
 - 알제리는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국토와 4,2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주요 산유국임.
 - 튀니지는 상대적으로 부존자원은 빈약하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음.
 - 모로코는 세계 제1위의 인광석 수출국이며 최근 북아프리카의 제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신흥국임.
- ▶ 건설·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에너지, 광물 교역, 공적원조사업(ODA)을 통한 정부 간 협력 등 다방면에서 진행 중인 한·북아프리카 3개국의 경제협력은 이번 국무총리 순방을 계기로 한 단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알제리는 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인프라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역내 최대 교역국이며, 향후 산업다 각화정책과 투자환경 개선정책에 따라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자동차부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
 - 한·튀니지 경제협력은 교역이나 투자 규모는 작지만 공적원조사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튀니지의 관광업,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따른 협력 수요가 기대됨.
 - 모로코의 제조업, 관광업, ICT,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 향후 자동차, 전기·전자, 전력, 전자정부 분야의 교역 및 투자 확대, 인프라 사업 수주 증가가 기대됨.
- ▶ 북아프리카 3개국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수요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 제조업 투자 유치 등 3개국 정부의 전략적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 북아프리카 3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국의 수요에 적합한 진출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지 정보가 필요함.
 - 향후 이 지역을 기반으로 미국, 유럽 시장이나 중동,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장 진출까지 고려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함.



차 례

1. 한·북아프리카 3개국 경제협력 개요

2.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가. 교역

나. 투자

다. 해외건설

3. 주요 이슈 및 기회 요인

가. 알제리

나. 튀니지

다. 모로코

4. 시사점

참고문헌

1. 한·북아프리카 3개국 경제협력 개요

■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3개국은 석유, 천연가스, 인광석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관광업, 제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알제리는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국토(238만 ㎢, 아프리카 1위), 인구 4,200만 명(아프리카 9위)의 거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산유국임.
 - 최근 화석에너지산업 중심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다각화정책을 펼치고 있음.
- 튀니지는 유럽과의 근접성, 온화한 날씨, 수많은 유적지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업을 육성하고 있음.
 - 최근 전자제품, 의류 등 제조업 상품의 대유럽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보통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모로코는 세계 제1위의 인광석 수출국이며 최근 전기·전자, 의류 등 제조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북아프리카의 대표적 에너지 수입국으로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¹⁾

■ 한·북아프리카 3개국의 경제협력은 전통적인 협력 분야인 건설·플랜트 분야를 비롯하여 자동차, 전자제품 수출과 석유, 광물 수입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적원조사업(ODA)을 통한 정부 간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알제리는 북아프리카 최대 인프라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교역국으로, 그동안 신도시, 도로, 철도 등 공공건설사업과 플랜트사업에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하였고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수출도 꾸준히 이루어졌음.
 - 2014년 이후 저유가로 인한 알제리 정부의 인프라 예산 축소, 프로젝트 미수금 문제 발생, 자동차 수입 규제 강화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최근 현대자동차 조립공장 설립을 계기로 자동차부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국제 유가 회복에 따른 공공인프라사업 확대가 예상됨.
- 한·튀니지 경제협력은 교역이나 투자 면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이나, 전자정부 구축 지원 등 공적원조사업을 바탕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모로코의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참여와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모로코 진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최근에는 광업 이외에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정부 구축, 보건사업, 직업 훈련 지원 등 공적원조사업도 활발함.

■ 이번 이낙연 국무총리의 북아프리카 3개국 공식 방문은 지난 7월 케냐, 탄자니아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아프리카 순방으로 아프리카 경제외교를 확대하고 한·북아프리카 3개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1) 모로코는 2018년 기준 기업환경지수 60위(아프리카 국가 중 3위)를 기록하고 있음(World Bank, 검색일: 2018. 12. 11).

- 이번 북아프리카 3개국 총리 순방은 2006년 대통령 알제리 국빈 방문과 2014년 총리 모로코 방문 이후 가장 최고 위급 방문이며, 튀니지는 총리급 첫 방문임.²⁾
- 특히 알제리와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이후 활발하게 민·관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방문은 이를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2.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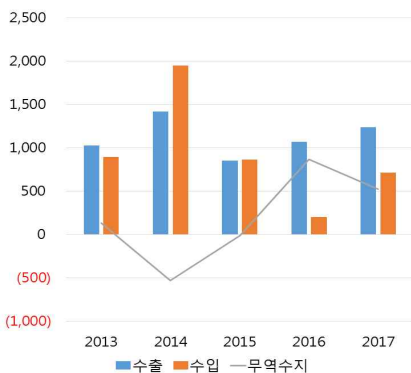
가. 교역

■ 우리나라의 북아프리카 3개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유가 상승과 함께 건설 기자재 및 관련 장비 수출 부진으로 2017년 감소세를 보였음.

-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과 수입에서 북아프리카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5%, 1.4%이며, 교역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로 나타남.³⁾
- 우리나라의 對알제리 수출은 자동차 및 각종 기계류를 중심으로 2015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이 높은 비중(99.6%)을 차지하고 있는 對알제리 수입도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현대자동차의 티아레트(Tiaret) 조립공장이 2016년 완공 및 가동되면서 우리나라의 對알제리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⁴⁾

그림 1. 한·알제리 교역 추이
(2013~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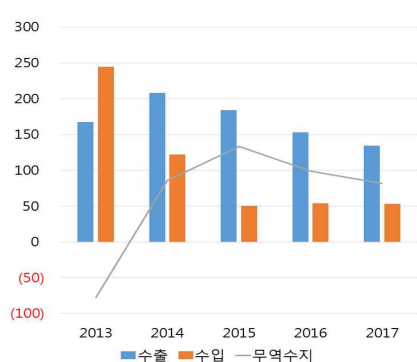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ITA, 무역통계, 맞춤형통계(검색일: 2018. 12. 3).

그림 2. 한·튀니지 교역 추이
(2013~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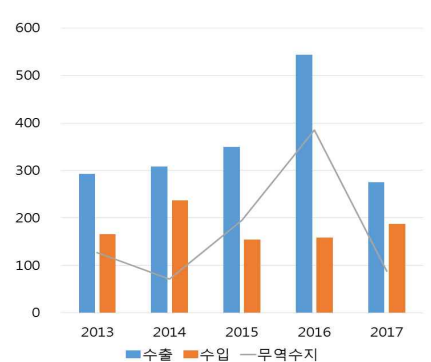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ITA, 무역통계, 맞춤형통계(검색일: 2018. 12. 3).

그림 3. 한·모로코 교역 추이
(2013~17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ITA, 무역통계, 맞춤형통계(검색일: 2018. 12. 3).

2) 임법부 수장으로는 2011년 박희태 국회의장이 알제리를 방문하였고, 2010년 김형오 국회의장이 튀니지를 방문한 바 있음.

3) 2013~17년 누계 기준.

4) 조기창(2016. 12. 13).

- 우리나라의 對튀니지 교역 규모는 3개국 중 가장 작으며, 2014년 이후 교역량 및 무역수지 모두 감소하고 있음.
- 2017년 모로코의 각종 프로젝트 활동 위축으로 우리나라의 철구조물, 건설중장비 등의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수입은 2015년 이후 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표 1. 한국의 對북아프리카 3개국 10대 수출입품

(단위: %)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승용차	17.3	나프타	66.8	승용차	33.9	나프타	54.8	승용차	19.2	동괴 및 스크랩	22.6
화물자동차	12.4	천연가스	15.9	건설중장비	10.6	직물제의류	13.0	철구조물	7.5	나프타	20.4
건설중장비	9.8	원유	12.4	기타석유화학제품	6.7	동괴 및 스크랩	4.6	화물자동차	7.3	직물제의류	10.5
선박	7.4	LPG	4.5	철도차량	6.4	편직제의류	4.4	건설중장비	6.1	집적회로반도체	10.5
자동차부품	5.2	암모니아수	0.2	화물자동차	6.1	어육	4.0	기타정밀화학원료	3.6	기타비금속광물	9.5
가열난방기	3.5	아연괴 및 스크랩	0.0	합성수지	5.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3.6	타이어	3.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3.4
철구조물	2.5	어육	0.0	평판디스플레이	2.2	변성기	1.9	기타석유화학제품	2.7	갈치	3.1
합성수지	2.4	양가죽	0.0	기타플라스틱제품	1.7	자동차부품	1.3	폴리에스테르 섬유	2.6	편직제의류	2.9
공기조절기	2.3	사료	0.0	자동차부품	1.4	가방	1.3	합성수지	2.5	어육	2.8
배전 및 제어기	1.8	용접기	0.0	철강관	1.3	무선통신기기 부품	1.1	밸브	2.1	뱀장어	1.4

주: MTI 4단위 기준, 2013~17년 누계 기준.

자료: KITA, 무역통계, 맞춤통계(검색일: 2018. 12. 3).

나. 투자

■ 우리나라의 북아프리카 3개국에 대한 투자는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로, 특히 모로코를 중심으로 광업과 제조업 진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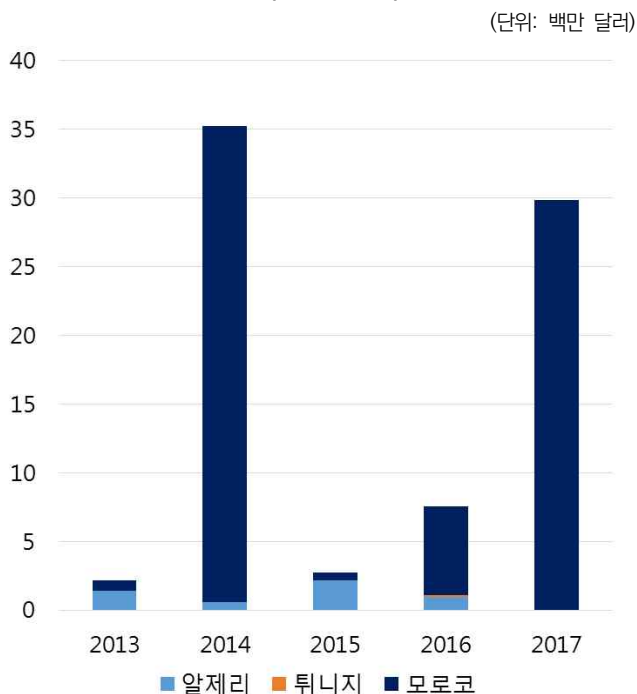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북아프리카 3개국에 대한 투자는 중동 전체 투자의 1.5%에 불과하며,⁵⁾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국 중 모로코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알제리와 튀니지의 비중은 상당히 낮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對모로코 투자는 2014년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업종에 진출(3,411만 달러)하면서 급증한 뒤 2015년에는 투자 규모가 다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임.
 -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개방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5) 2013~17년 누계 기준.

제도 개선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 힘쓰고 있어 최근 유럽 기업의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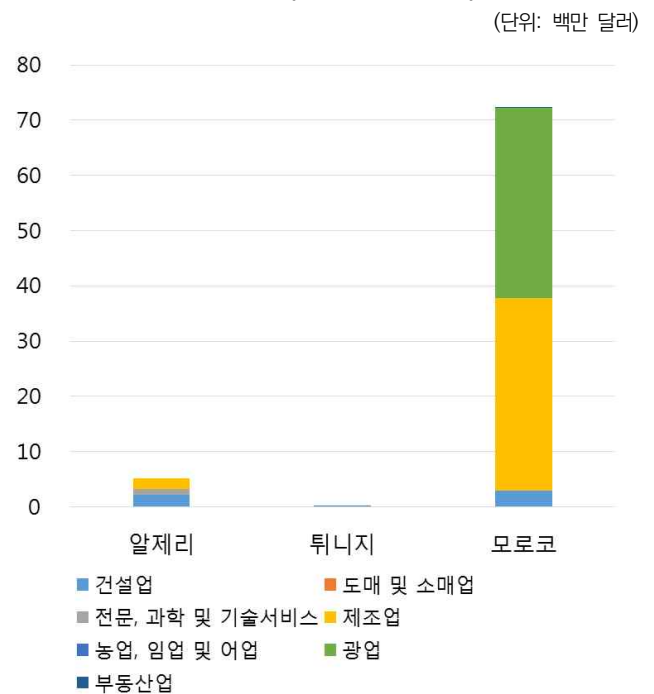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모로코의 인광석 개발, 자동차부품 관련 부문에 주로 투자하였으며, 알제리에서는 건설 및 제조업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음.

그림 4. 한국의 對북아프리카 3개국 해외직접투자 추이(2013~17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국가별(검색일: 2018. 12. 3).

그림 5. 한국의 對북아프리카 3개국 주요 부문별 해외직접투자(2013~17년 누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업종별(검색일: 2018. 12. 3).

다. 해외건설

- 우리나라의 북아프리카 3개국에 대한 해외건설 수주는 알제리의 산업설비 및 토목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 그 규모가 급감하고 있음.

- 북아프리카 3개국에 대한 해외건설 수주에서 국가별로는 알제리가, 수주 부문별로는 산업설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알제리와 모로코는 우리나라 대중동 해외건설 수주의 각각 6.4%,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튀니지에 대한 수주 비중은 상당히 미미함.⁶⁾
- 2014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의해 알제리의 재정 수입이 감소하면서 각종 정부 주도 프로젝트도 연기 및 취소되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對알제리 건설 프로젝트 수주 감소로 연결되었음.

6) 2013~17년 누계 기준.

- 우리나라의 알제리 수주에서 발전소, 가스처리시설, 원유시설 등의 산업설비와 산업단지 조성 및 조경 등의 토목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모로코에서는 발전소 및 일반 공장 등 산업설비에 대한 수주가 대부분을 차지함.
- 튀니지에서는 공적원조 차원의 소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가 진행된 바 있음.

그림 6. 우리나라의 북아프리카 3개국 해외건설 수주 추이(2013~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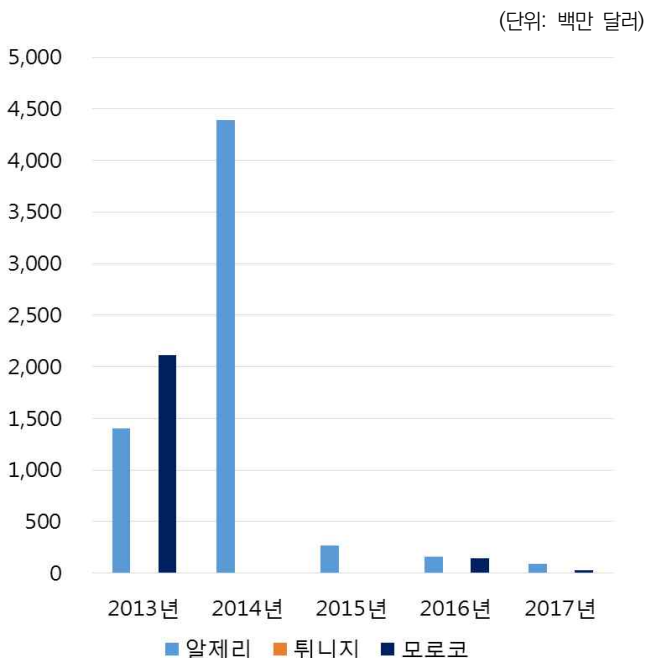


그림 7. 우리나라의 북아프리카 3개국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2013~17년 누계)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 연도별 현황(검색일: 2018. 6. 5).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 연도별 현황(검색일: 2018. 6. 5).

3. 주요 이슈 및 기획 요인

가. 알제리

■ 석유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알제리는 저유가 기조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다각화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음.⁷⁾

- 알제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2030(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 2030)'의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자국 총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27%로 확대하고자 함.⁸⁾

7) 석유 및 가스 부문은 알제리 총수출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음(OPEC, About Us, Members Countries, Algeria, https://www.opec.org/opec_web/en/about_us/146.htm(검색일: 2018. 12. 11)).

8)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2017),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p. 4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2030’은 2030년까지 22,000M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태양광(13,575MW)과 풍력(5,010MW)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⁹⁾
- 2018년 11월 알제리 전력가스관리위원회(CREG: 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Electricity and Gas)는 동 계획의 일환으로 15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경쟁 입찰 형식으로 발주함.
- 알제리 관광·수공업부(Ministry of Tourism and Handicrafts)는 2017년 기준 270만 명 수준인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27년까지 44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숙박 인프라 구축, 관광단지 개발 등을 본격화하고 있음.
- 2017년 12월 하센 머무리(Hacène Mermouri) 알제리 관광·수공업부 장관은 자국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1,812개의 신규 호텔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으며, 이 중 582개는 이미 공사가 착수된 상태라고 밝힘.¹⁰⁾
- 아울러 알제리는 외국기업의 생산시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완제품 수입을 강력히 통제하여 자국 제조업, 특히 자동차 부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 알제리는 최근 투자법을 개정하는 등 자국 투자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 알제리는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 감축, 자국인 고용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7월 투자법을 개정함.
- 개정된 투자법은 △ 법인세 면제 △ 투자 추진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 관광업, 농업 부문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국가 경제에 중요성을 갖는 예외적 투자에 관한 특별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51:49 조항은 투자법에서 삭제했지만, 매년 12월 발표하는 연례재정법(Finance Act)에 동 규정을 적용할 경우 여전히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한 폐지라고 보기 어려움.¹¹⁾¹²⁾

나. 튀니지

■ 튀니지는 정부 주도하에 관광, 수공업, 교통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2015년 두 차례 테러를 겪었던 튀니지는 동년 6월 관광산업 위축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관광 부문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치안 강화,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¹³⁾
- 2018년 2월 튀니지 정부는 수공업 부문 기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제공, 마케팅 지원, 전담 기관 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공업 활성화 계획(National Handicraft Promotion Plan, 2018~2022)’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공업 수출 비중을 현 1.8%에서 3.0%로 높이하고자 함.

9) “Algeria adopts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2015. 5. 2, 검색일: 2018. 12. 5).

10) Menear(2017. 4. 10, 검색일: 2018. 12. 7).

11) 51:49 조항은 알제리 내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비율을 최대 49%로 제한하는 규정임.

12) 조기창(2016. 10. 20, 검색일: 2018. 12. 11).

13) 2015년 튀니지에서는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두 차례의 테러가 발생하여 총 61명의 희생자가 발생함.

- 아울러 2018년 3월 튀니지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신규 국제공항 건설, 철도 및 항만 시설 현대화 등 교통 관련 대규모 인프라 사업 계획을 발표함.¹⁴⁾
 - 동 계획의 주요 사업으로는 유티계 국제공항(Utique International Airport) 건설, 튀니스 카르타고 국제공항(Tunis Carthage International Airport) 확장 공사, 스팅스(Sfax) 경전철 구축, 비제르트(Bizerte) 항구 확장 공사 등이 있음.
- 한편 튀니지 정부는 산업혁신청(APII: Agency for the Promotion of Industry and Innovation)을 통해 18대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부문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8대 전략분야로는 바이오, 방직, 신재생에너지, ICT 등이 있으며, 지원 규모는 총 투자액의 15%이지만, 최대 100만 디나르(약 40만 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¹⁵⁾

■ 튀니지는 2017년 12월 중소기업 관련 부처를 개편하고 이듬해 4월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도입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17년 12월 튀니지 정부는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를 산업중소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로 확대·개편하고, 동 기관 내에 중소기업국(Directorate for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등의 부서를 신설함.
 - 동 개편으로 인해 기존 산업부와 무역부(Ministry of Trade)가 분담하였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산업중소기업부가 전담하게 됨.
- 아울러 2018년 4월에는 창업 규제 완화 및 스타트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도입함.
 - 동 법에 따라 스타트업은 창업 후 8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스타트업 1개사당 최대 3명의 창업자가 정부로부터 1년간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한편 이에 앞서 2015년 8월 튀니지 정부는 실업 해소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6억 디나르, 2억 달러)을 편성하고 향후 3년간 지방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지원은행 지원 등에 이를 분배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¹⁶⁾

다. 모로코

■ 모로코는 2014년 4월 ‘산업 증진 계획 2014-2020’을 발표하는 등 제조업 육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이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14) 주튀니지 한국대사관, 튀니지 정보, 정치, Chahed 총리, 국가개발 5개년계획 추진동향 점검, http://overseas.mofa.go.kr/tn-ko/brd/m_11712/view.do?seq=134247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7(검색일: 2018. 12. 6).

15) 튀니지 산업혁신청의 18대 전략분야로는 농수산물 유통, 나노, 바이오, 방직, 전자제품, 산업용 수지,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 제약, 임상 실험, 산업용품, 방산, 문화 창조, 재활용·폐수처리, 사막화방지·생물다양성 보존, 신재생에너지, ICT, 물류서비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있음.

16) 주튀니지 한국대사관, 튀니지 정보, 경제, 튀니지 주간 경제동향, http://overseas.mofa.go.kr/tn-ko/brd/m_11713/view.do?seq=1164032&srchFr=&srchTo=&srchWord=중소기업&srchTp=1&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검색일: 2018. 12. 8).

- 모로코 정부는 '산업 증진 계획 2014-2020(Industrial Acceleration Plan 2014-2020)'의 시행을 통해 2020년까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9%로 확대하고자 함.
- 동 계획은 자동차, 항공우주, 건설기자재 등을 12대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 자금 마련, 세금 감면, 기술교육 제공 등을 주요 육성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¹⁷⁾
 - 모로코 정부는 2015년 1월 산업개발펀드(Industrial Development Fund)를 조성하고 매년 30억 디르함(3억 달러)을 동 계획의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 더불어 자동차 제조 부문의 Training Institutes for the Automotive Industry(IFMIA),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Training Institute for Professions in Renewable Energy and Efficiency(IFMEREE), 섬유 및 가죽 산업 부문의 Casa Moda Academy 등 산업별로 경영 및 기술교육 기관을 두고 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 이 계획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의 금융접근성 확대, 인프라 구축 등을 제조업 육성을 위한 10대 축으로 선정하고 있음.

■ 모로코는 '산업 증진 계획 2014-2020' 외에도 '관광산업 비전 2020(Tourism Vision 2020)', '디지털 계획 2020(Digital Plan 2020)' 등 산업별 중장기 국가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 2015년 발표된 '관광산업 비전 2020'은 세계 20대 관광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확대, 관광특구 개발 등을 이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음.
 - 모로코 정부는 동 계획의 시행을 통해 4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관광수입을 1,400억 디르함(147억 달러)으로 확대하고자 함.
- '디지털 계획 2020'은 전자정부 구축,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디지털 관련 교육 제공 등을 통해 모로코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허브로 전환시키고자 함.¹⁸⁾
 - 2017년 모로코 정부는 본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디지털개발청(DDA: Digital Development Agency)을 신설함.
- 또한 모로코 정부는 2030년까지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52%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모로코는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0,090MW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며, 발전원별 비중은 태양광·열(4,560MW), 풍력(4,200MW), 수력(1,330MW) 순임.
 - 2015년 모로코의 GDP 대비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 비중은 세계에서 네 번째 수준을 기록함.
 - 모로코는 누어 라아유네(Noor Laayoune) 태양광 발전소 확장 건설, 미델트(Midelt), 타자(Taza) 등 총 300MW 규모의 풍력단지 건설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0년 자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4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17) '산업 증진 계획 2014-2020'의 12대 전략분야로는 자동차, 항공우주, 전자장비, 섬유, 가죽, 화학제품, 제약, 건설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전력, 기계 및 금속 가공, 오프쇼어링이 있음.

18) Fathi(2016. 7. 29, 검색일: 2018. 12. 9).

4. 시사점

■ 북아프리카 3개국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수요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북아프리카 3개국 모두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ICT, 관광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투자 유치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관련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사업 협력, 정보 공유, 금융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함.
 -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재정 보증이나 프로젝트 미수금 문제를 비롯한 현지 계약 시행 과정의 애로사항 등 대다수 진출기업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
- 제조업 분야의 경우 상품 수출보다 현지 투자를 통한 합작 진출과 기술 협력에 대한 선호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합작 투자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진출희망기업이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현지의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진출국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가 간 정치·사회·문화·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국의 수요에 기반한 진출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지 정보가 필요함.

- 북아프리카 3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아랍과 유럽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정치 구조의 이질성, 3개국 간 역사적 관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존재함.
- 특히 에너지 수출입 구조나 산업 구조의 차이, 대외교역 및 외국인 투자 환경의 차이를 비롯한 서로 다른 경제적 특성 때문에 각국의 수요 또한 달라 3개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진출하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랍권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나 교역 및 투자 관련 법·제도 정보 등 일반적 수준의 현지 정보는 점차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으나 현지 산업이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 정보를 얻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음.
 - 정부 차원에서 현지 전문가를 육성하고 현지 진출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진출 시 현지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시장 진출이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잠재적 시장에 대한 전략을 함께 고려하는 중장기 계획이 요구됨.

- 1인당 국민소득이 2017년 기준 3,000~4,000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현지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한 초기 진출 시 어려움 때문에 내수시장만을 고려한다면 현지 진출의 타당성은 크지 않음.
- 그러나 대서양에 인접하고 유럽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나 불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적 특성 이외에도 모로코 등 일부 국가의 유리한 대유럽, 대미 교역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⁹⁾

19) 모로코는 미국, EU, EFTA, 터키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튀니지 또한 EU와 포괄적자유무역지대(DCFT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알제리나 모로코는 전통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외교 및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북아프리카 주요 기업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어 이 지역을 향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음. **KIEP**

참고문헌

[국문자료]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2017.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p. 48.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온라인 자료]

- 조기창. 2016. 「알제리 투자환경 및 개선을 위한 노력」. 『Emerics 아프리카·중동』. (10월 20일). http://www.emerics.org/www/issue.do?systemcode=05&action=detail&brdctsno=199514&search_regioncode1=01&search_regioncode2=08&search_regioncode3=00&search_area=undefined(검색일: 2018. 12. 11).
- 조기창. 2016. 「최근 우리나라 대알제리 자동차 수출 급증」. 『Kotra 해외시장뉴스』. (12월 13일).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6072&searchNationCd=101096>(검색일: 2018. 12. 9).
- 주튀니지 한국대사관, 튀니지 정보, 경제, 튀니지 주간 경제동향. http://overseas.mofa.go.kr/tn-ko/brd/m_11713/view.do?seq=1164032&srchFr=&srchTo=&srchWord=중소기업&srchTp=1&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검색일: 2018. 12. 8).
- 주튀니지 한국대사관, 튀니지 정보, 정치, Chahed 총리, 국가개발 5개년계획 추진동향 점검. http://overseas.mofa.go.kr/tn-ko/brd/m_11712/view.do?seq=134247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7(검색일: 2018. 12. 6).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국가별. <http://211.171.208.92/odisas.html?type=05>(검색일: 2018. 12. 3).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수주통계, 연도별현황. http://www.icak.or.kr/sta/sta_1401.php(검색일: 2018. 6. 5).
- KITA, 무역통계, 맞춤통계. <http://stat.kita.net/stat/cstat/peri/ctr/CtrItemList.screen>(검색일: 2018. 12. 3).
- “Algeria adopts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 2015. 5. 2. Enerdata. <https://www.enerdata.net/publications/daily-energy-news/algeria-adopts-renewable-energy-development-plan.html>(검색일: 2018. 12. 5).
- Fathi, Par Nabila. 2016. “Les points clés du Plan Maroc numérique 2020.” Medias24. (July 29). <https://www.medias24.com/maroc/economie/165825-les-points-cles-du-plan-maroc-numerique-2020.html>(검색일: 2018. 12. 9).
- Meanear, Harry. 2018. “City Focus: Algiers.” Business Chief. (April 10). <https://africa.businesschief.com/leadership/3625/City-Focus:-Algiers>(검색일: 2018. 12. 7).
- OPEC. About Us, Members Countries, Algeria. https://www.opec.org/opec_web/en/about_us/146.htm(검색일: 2018. 12. 11).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http://www.doingbusiness.org/en/rankings>(검색일: 2018. 12. 11).